

“주님, 왜 우십니까?”

■ 이종윤 원로목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신 주님께서 왜 울고 계십니까? 여자여 울지 말라 하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의 눈가에 왜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까? 배신의 쓴잔을 받으시면 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 오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우뚝이 세워진 십자탑을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찬가와 자랑과 찬평(讚評)을 해주시기보다 오히려 보시기에 민망하여 울고 계신 것입니까? 피 묻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찢은 원죄를 안고 싸구려 축복이나 팔고 고난 없는 성공품을 전하며 신앙의 지조마저 상실한 변모된 이 시대의 교회 아닌 교회를 보시고 견딜 수 없어 그토록 슬프게 보여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공(公)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익하고 지루하며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 삶은 전체가 예배라는 미명하에 공(公)예배는 가급적 축소 또는 대체시킬 소그룹 모임으로 바꾸고 친교와 기도회로 모여 효과적 실용성을 찾는 예배 아닌 집회를 강조하며 흥미 중심 오락성 흥행몰이 예배가 번질되고 있어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 칭호보다 학문적 업적도 없이 박사로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양강좌 수준보다 못한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자칭 성직자라 하지만 자기 기분이나 내는 카우보이들이 되어 양의 머릿수나 세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기가 막히고 괴로워 울고 계십니까?

바산의 살찐 암소 같은 년들아 하시던 아모스 선지자와 독사의 자식들이야 책망하시던 세례 요한이 없어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앞잡이로 변신한 가롯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생각하시고 안타까워 아직도 울고 계십니까? 21세기 첨단과학이 사람들을 광분시키고 혁명적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터에 당신의 피조물들이 점차 번영과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이 울고 계시니 어찌 된 것입니까?

질병과 재난, 굶주림과 억눌림에 울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교회 확장이나 하는 것을 주의 일로 착각하고 있는 소목에 찬 지도자들과 회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바알산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리 싸움이나 하고 심지어 금권과 폭력까지 동원하여 교회를 점령하려 하니 붙여진 등장이요, 맛 잃은 소금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비통한 모습을 보시고 차라리 하는 마음까지 드셨기에 그것을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이 그토록 슬프게 보인 것입니까?

불의가 참을 핍박하고 거짓이 진리를 조롱하는 세대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 주님 앞에 무릎꿇고 비옵나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놈부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꺾여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근심감이 자랑감 되게 하옵시고 일감이 일꾼 되고 싶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한국장로신문 2011년 8월 6일 발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다락방장/교구 간사를 통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진행되고, 본당 예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웨민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대면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 중계되는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예배, 새벽예배, 수요일배도 대면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한편 다음 주일 9월 5일에는 손달익 담임목사 위임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1부 예배 후에 열립니다. 청빙을 위한 투표는 찬양예배 직전까지 진행되고, 찬양예배 후에 속회하여 개표하게 됩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829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 | | |
|------------------------|---|--|
|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 서울교회QR코드  |
| | | |

| |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선 교 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현·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영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브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용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전임목사 조동수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미래가 바뀐 사람 ”

■ **창 41:37-43**
 망명자 또는 난민의 처지에서 인생을 바꾼 성경의 대표적 인물은 요셉입니다. 꿈 많고 순진했던 소년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다가 17세에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중 추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도 배신의 쓰라린 경험을 하는 등 쉽지 않은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왕에게 발탁되어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긴 세월을 권력의 정상에 머물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그의 도움으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하면서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분노와 눈물과 비명 속에 애굽으로 갔지만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역사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미래를 바꾸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살아 갑니다. 任重道遠(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이유도 미래를 바꾸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1. **자기의 인품 관리**
 요셉의 생애를 보면 큰 나라의 총리가 될 만한 자질이 구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경력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학연, 지연을 비롯해 총리가 될 만한 외형적 조건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인간적으로 매우 좋아했습니다. 노예였을 때는 주인 보디발이 그를 좋아하고 신뢰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와 동료 죄수들도 그를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까지도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나?'(창 41:38)라며 감탄하고 좋아했습니다. 노예 출신의 죄수인 그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내적 매력, 즉 인격적 매력 때문입니다. 인격이란 잘 정돈된 내면의 모습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내면은 온갖 요소들로 가득하지만 그런 본능적인 내면을 교육, 경험, 신앙 등을 통해 정돈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의 현실은 분노와 의심과 상실감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결코 이런 감정들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감정을 극도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다스리는 인격적 능력으로 자기 미래를 바꾸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2.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요셉이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자신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과 극적으로 재회했을 때 형들은 반가움 보다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합니다.(창 45:5) 당시 애굽이 직면했던 7년 대흉년은 엄청난 재난상황이었습니다. 이 흉년은 전국적인 것이었고 더 나아가 전 아프리카 대륙과 인근 중동지역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이 대한난의 시대를 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불러오셨고, 피란곡질 많은 젊은 시절을 통과하게 하고 이집트 정부의 중심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대 흉년의 시대에 살아남게 하고 애굽의 모든 가족들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생애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자기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사에서 만나는 작은 사건들과 대들고 충돌에 상처받지 말고 인생과 역사를 크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살아야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오늘 나를 넘어지게 만든 거침들이 내일 내가 딛고 일어설 받침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론은 요셉과 바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바로는 요셉에 대하여 이미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꿈의 해몽을 통해 요셉의 지혜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국경의 전권을 요셉에게 위임하고 그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요셉을 당시 세계 최강의 국력을 가진 최고 문명의 나라 애굽의 전권 총리로 임명한 이유는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은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방탕이나'(막 7:21). 이와 같은 인간 내면의 요소를 간직한 채로는 아무리 투쟁하고 절치부심을 하고 한 맺힌 노력을 해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만 삶이 바뀌는 역사가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때문입니다.(요 16:13)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바꾸십니다.

요셉의 미래를 바꾸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의 인도를 받고 그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그가 바꾸실 것입니다. 자기 인품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삶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 Sunday Worship Service | | |
|------------------------|---------|--------|
| 시 간 | 인 도 | 기 도 |
| Time | Prsider | Prayer |
| I 오전 9시 | 조원영 목사 | 오광환 장로 |
| II 오전 11시20분 | 전재홍 목사 | 조정식 장로 |
| III 오후 2시 | 서명철 목사 | 서명철 목사 |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148:1...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1(시 118)... 다 합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287(205)... 다 합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창 41:37-43...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 설 교 Sermon“미래가 바뀐 사람”... 손달익 목사
- * 찬 송 Hymn435(492)... 다 합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 목 도 다 합 께
- 성 시 시 96:1-2 인 도 자
- 찬 송 361(480) 다 합 께
- 기 도 압대중 집사
- 성 경 행 1:12-26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오로지 기도에 힘쓰나리” ... 설 교 자
- * 찬 송 359(401) 다 합 께
- * 축 도 설 교 자
-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서명철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 기 도 I부: 김은희 권사 II부: 남영주 권사
- 성 경 행 2:1-13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성령의 임재와 새 시대”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 구 분 |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11시20분 | 웨스트민스터 홀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새 벽 기 도 회 | | 오전 5시 30분(월 - 토) | 본당 |

교회소식

모임

1. 손달익 목사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 9월 5일(주) 주일 1부 예배 후 개회, 찬양예배 후 속회하여 개표
 - 투표 장소 : 본당(2층)
 - 투표 시간 : 공동의회 개회 이후부터 찬양예배 직전까지
 - 투표 자격 : 본 교회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새가족 등록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예배 전, 후로 새가족부에서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8.9.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따라서 수요일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 주일1,2,3부 | 찬양예배 | 주일예배 합계 | 수요일예배 | 새벽기도 |
|----------|------|---------|-------|--------|
| 1,598명 | 437명 | 2,035명 | 481명 | 1,971명 |



징계의 사인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며 돌아설 기회를 주신 후에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징계의 사인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공통된 소리다.

시대감각을 갖고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심판이 얼마나 황급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날은 심히 크고도 두려운 날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임하기 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때가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인생을 징계하시기보다는 용서를, 멸망케 하시기보다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 민족, 국가가 살기 위해 모든 우상과 악행을 버리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찬 양 대 | | | | | | 봉 헌 송 | | |
|-------|------|-----|--------|-------|-----------|---|-----|-------|
| 예 배 | 찬양대 | 지휘자 | 오르가니스트 | 피아니스트 | 팀파니스트 | 찬양대 | 지휘자 | 피아니스트 |
| I 부 | 가브리엘 | 백경화 | 이수경 | 정혜은 | 윤주일 | 가브리엘 | | |
| II 부 | 할렐루야 | 류총기 | 차주연 | 김양언 | 윤주일 | 그레이스헨드벨 | 송재월 | |
| III 부 | 임마누엘 | 유태왕 | 전지희 | 이주희 | 윤주일 | 아멘관련악단 | 임범창 | |
| 찬양예배 | 베들레헴 | 임범창 | 안효주 | 박수강 | 윤주일 |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앞드리 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 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창 41:43) | | |
| 영어예배 | 예루살렘 | | | | 금주의 성구 | | | |
| 수요일부 | 은 빛 | 박래경 | 안효주 | 홍혜란 | | | | |
| 수요일부 | 시 온 | 최유현 | 김예지 | 조현정 | | | | |